



못하거나 신앙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여 잠시 교회를 떠난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과 인내의 태도로 그들을 기다려주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부모 역시 자신이 선물로 받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선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손들이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시십시오. 신앙을 전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셋째, 가정은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가정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가정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주시십시오.

사제 여러분, 사목활동 안에서 선교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입니다. 사제 자신의 재능, 시간, 그리고 가진 바를 선교를 위하여 더 활용하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아주며,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사목활동을 펼쳐주시십시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유한 신분 안에서 선교에 충실 합시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삶은 참된 선교의 힘이기에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의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가져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가정생활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기억하며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알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갇혀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튼튼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며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증언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가정을 이루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가정도 ‘작은 가정 교회’가 되도록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